

## 금속노조, 2019년 중앙교섭 등 임·단협 준비 마쳐

### 노조, 금속산업 최저임금 1만 원 등 요구안 전달 ... 오는 4월 16일 1차 교섭 예정

금속노조가 3월 14일 금속산업사용자 협의회(아래 사용자협의회)에 2019년 중앙교섭 요구안을 전달했다.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오는 4월 16일 노조 4층 회의실에서 1차 중앙교섭을 연다.

이날 노조 현대자동차지부와 현대중공업지부, 경남지부도 중앙교섭 요구안을 사측에 보냈다. 노조 각 지부는 3월 15일 일제히 중앙교섭 요구안과 지부 집단교섭 요구안을 발송한다.

황우찬 노조 사무처장은 3월 14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사무실에 방문해 박근형 회장 직무대행을 만나 올해 중앙교섭 요구안을 전달했다.

황우찬 노조 사무처장은 박근형 사용자협의회장 직무대행에게 “자동차 부품사들이 아주 어렵다”라며,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



대자고 제안했다.

박근형 회장 직무대행은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과 일터 괴롭힘 금지 관련 합의는 금속산업 노사가 한국사회에서 가장 먼저 합의한 의미 있는 합의였다”라며 “노조 요구안의 취지는 이해하나 더 연구한 뒤 제시안을 내겠다”라고 답했다.

노조는 올해 중앙교섭 요구안으로 ▲금속산업 최저임금 통상상급 10,000원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 ▲일터 괴롭힘 금지 관

련 조항 개정 등을 요구했다. 통일 요구안은 지난해에 이어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 참가이다.

노조는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 요구와 관련해 ‘노동권 보장과 차별금지’ 조항을 협력사 선정 기준으로 사용하고, 하청 도급 회사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의 이행을 금속산업 협약에 명시하자고 요구했다. 일터 괴롭힘 금지 요구는 기존 합의안에 개정 근로기준법 내용을 포함하고, 정서상 괴롭힘 금지와 비정규직 보호, 노조탄압 금지를 추가했다.

지부별 공동요구로 현대자동차지부와 기아지부를 제외한 모든 사업장은 123,526원의 임금인상을 요구한다. 현대차와 기아지부는 기본급 91,580원 인상과 원하청 격차 해소를 위해 31,946원 특별인상을 요구한다.

## “노동자는 주주라도 입장할 수 없습니다”

### 민주노조 설립 후 첫 포스코 주총 ... “최정우 회장은 불법 파견 철회하고 노조와 대화 약속 지키라”

포스코 주식을 가진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주주총회 참석을 저지당했다. 포스코 그룹은 3월 15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51차 정기 주주총회를 열었다.

포스코 원·하청 노동자들은 주총에 참석해 경영 전반과 불법 파견, 투명경영, 산업안전 문제 등에 관해 질의하려 했다. 사측은 용역을 동원해 물리력으로 노동자 주주들의 입장을 가로막았다. 이 과정에서 입

장을 못 한 다른 주주들의 격렬한 항의가 이어졌다.

포스코에 민주노조가 들어선 뒤 여는 첫 주총이었다.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와 포스코 사내하청지회는 노조와 대화를 외면하고 있는 최정우 회장을 만나 노동조합의 요구를 전달하려고 했다.

포스코는 아침 일찍부터 주총장으로 들어가는 모든 문을 용역을 동원해 봉쇄했다. 이때금 입구를 열어 조합원이 아닌 주주만

선별해 입장시켰다. 지회 조합원들이 주주총회 초대장을 보여주며 입장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막무가내로 가로막았다.

금속노조 포스코 노동자들은 ▲포스코 50년 무노조 경영 폐기 ▲금속노조 인정하고 최정우 회장 직접 대화 ▲노조 참여 아래 산업안전 시스템 전면 혁신 ▲원·하청 노동자 임금과 복지차별 중단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 관한 광주고등법원 판결 이행 등을 요구했다.

# “노조파괴로 돈 벌고, 노동자 죽게 한 심종두 거리 할보”

창조컨설팅 항소심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 ... “부당노동행위 솜방망이 처벌 고리 끊어야”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을 세워 노조파괴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노무사 심종두, 김주목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다시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노조는 3월 13일 서울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노조파괴 중대범죄자, 창조컨설팅 심종두 항소심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남부지법은 2018년 8월 23일 심종두와 김주목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심종두는 질병을 이유로 보석신청을 허가받아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창조컨설팅 사건의 항소심 선고는 3월 21일에 나올 예정이다.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심종두에게 지금 필요한 건 관용이 아닌 교도소다. 심종두가 짓값을 치러야 정의가 바로 선다”라며 “노조파괴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



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민주노총이 끝까지 지켜보겠다”라고 경고했다.

이승열 노조 부위원장은 “창조컨설팅 노조파괴로 수천 명의 노동자와 가족이 고통받았다. 목숨을 끊은 사람도 있다. 그런데 1년 2개월의 실형과 벌금이 무겁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라며 “법원이 3월 21일 내릴 이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노동자의 피눈물을 닦아주는 선고가 되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조남덕 노조 대전충북지부 컨테이너탈지 회장은 “재판부가 노조파괴 사업장에 와서 현실을 봤으면 한다. 노조파괴를 당해

법원 문을 두들기면 재판 진행이 기본 3년 이상 걸린다. 그 사이 노동자는 만신창이가 된다”라고 설명했다.

조남덕 지회장은 “창조컨설팅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사법 정의가 죽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 할 자유와 노동 삼권이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꼴이 된다”라고 강조했다.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처벌 형량이 가벼워 기업들이 노조파괴에 거리낌 없이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영섭 노조 법률원장은 “삼성그룹 에스전략 문건에 부당노동행위로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적고, 증거만 숨기면 처벌도 피할 수 있다고 쓰여있다. 부당노동행위 처벌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을 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송영섭 원장은 “경사노위는 그나마 있는 처벌조항마저 삭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노조파괴 범죄집단에 면죄부를 주자는 꼴이다”라고 꼬집었다.

## “LG전자는 노동자 배제 밀실 정규직화 중단하라”

금속노조 LG전자서비스 노동자 결의대회... “투표 거친 대표가 현장요구안으로 교섭해야”

LG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회사가 정규직화 전환을 놓고 속칭 ‘노동자 대표’와 벌이고 있는 밀실 협상을 중단하고, 금속노조 LG전자서비스지회가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LG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3월 17일 일요일 서울 여의도 LG 본사 앞에서 ‘LG전자의 제멋대로 정규직화, 일방통행을 멈춰라. LG서비스맨 모두 모이자’라는 이름으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노동자들은 교섭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정규직화 교섭을 강행하는 속칭 ‘노동자 대표’와 회사를 비판했다.

김진철 금속노조 LG전자서비스지회장은 “LG전자 본사 앞에서 서비스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낼 기회가 생겨 감개무량하다”라며 “LG는 LG전자서비스지회 무시와 배제를 중단하고, 밀실 협상을 멈춰야 한다. 즉시 공개 협상을 벌여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지회는 엘지를 상대로 ▲LG전자서비스지회 무시와 배제 중단 ▲131개 센터 대표의 투표 결과 공개 ▲밀실 협상 중단 후 공개 협상 전환 ▲LG전자서비스 노동자 목소리 반영 ▲센터장 비리 조사 등의 요구를 내걸었다.

지회는 사측이 기본급 보장과 실적 압박 스트레스를 낮추지 않고, 관리자의 횡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에 소홀해 정규직화가 돼도 처우가 크게 달라질 게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경선 노조 서울지부장은 “회사가 집회에 나가고 민주노총 가입하면 직공용에서 배제할 거라고 협박한다. 조합원들은 이런 탄압을 뚫는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렸다. 오늘 집회는 출발점이다”라며 이날 집회의 의미를 부여했다.